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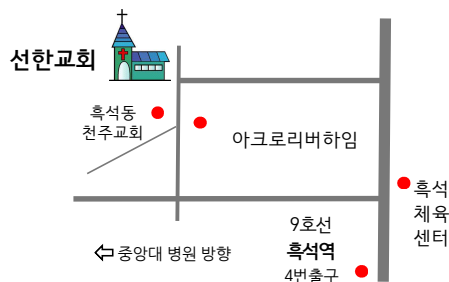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2부 주일 오전	11:00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오전 10: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주일 오후	3:30	오전 10: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0: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오전 10: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오전 10: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0: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0: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교육목사 정용준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윤영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주안에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장 로		관 리 장 로	
		손석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양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 11:1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1, 2부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19장 (통일찬송가 44장)
교독문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찬양과경배	419장 (통일찬송가 478장)
기도	윤호중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성경봉독	히브리서 11장 13~16절
설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임춘배 목사)
헌금	헌금송 : 유진수 청년
환영 및 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하나님의 부르심
축도	임춘배 목사
성도의교제	다함께

주일후

추석 연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주의 뜰에 사는 자의 복 (시편 65편 1~13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오늘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명절예배안내**

새벽예배(10월 2~3일)는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월삭새벽예배**

4일(수) 오전 5시 30분 (주관: 흑석 1,2 / 서초)
총동원금요기도회

6일(금) 오후 8시 30분 (주관: 청년부)
- 야외예배**

다음 주일(8일)은 전교인 야외예배로 드립니다.
* 시간: 오전 11시
* 장소: 매현시민의숲(양재 시민의 숲)
* 주차: 양재 매현 윤봉길 기념관
* 경품 협찬을 받습니다(문의: 손정환 집사)
* 준비물: 개인식기(교회에서 밥과 반찬을 준비합니다)
떨어 드실 식기 등은 각 개인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헌신예배**

22일 주일 오후 예배는 여호수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정예배		기회비용
찬양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통341)	
본문	마태복음 18장 8~9절	
말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난 것 빼고는 우리는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택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A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B를 가리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B보다는 A가 더 유리한 재화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지불하더라도 A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말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위해 세워놓아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 삶의 우선순위를 없어질 것에 두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를 돈에 두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벌다 죽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 성경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는 나라”(잠 11: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없어질 것에 두지 않았고 이 땅의 수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도 물질을 기회비용 삼아 더 큰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물질적인 재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외적인 충만함으로 절대 영적인 충만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인간의 지혜는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지하도를 지날 때마다 꼭 가고자 하는 쪽의 반대쪽으로 나오는 것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부터 믿은 것은 바로 표지판이었습니다. 내 감각과 다르더라도 이제는 표지판을 보고 갑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이성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서 없어질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인생의 설명서인 성경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히 11:13~16)
서 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 론	1.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1) 타향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되돌아갈 날을 기다린다(15절) (2)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이다(13절) (3)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모해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다(16절) (4)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16절)
	2. 교훈 (1) 사람들은 왜 고향을 그리워하는가? (2)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어디인가? (3)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 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윤호중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방성자 집사	백영미, 이소영, 서창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주 방 봉 사		

매일 Q.T.		지혜의 가르침을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	날짜 : 10월 2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본문	잠언 1:20~33		
말씀요약	지혜가 자기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외칩니다. 그들은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지혜의 책망을 받지 않았기에 재앙과 두려움의 때에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합니다.		
목상질문 1	지혜의 외침 1:20~22 우리가 지혜의 가르침을 몰랐다고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혜의 음성을 늘 가까이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까요?		
목상질문 2	어리석은 자와 돌이키는 자 1:23~33 지혜의 부름을 거부하고 교훈을 멸시하는 자의 결국은 어떠한가요? 성령이 깨우치신 말씀이기에 내가 거부하지 말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1장 33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삽니다. 자신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인이나 스승의 말, 혹은 시대가 외치는 세상의 말을 들읍시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의 말에는 성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때때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광야 같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셔서 간곡히 말씀하시는 지혜의 음성을 놓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광풍 같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온전히 평안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마음 판에 새겨야 하는 말씀”
찬양과 기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새 86)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학교 교실에는 저마다 급훈이 있습니다. 학급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정신을 급훈에 담아 액자로 만들어 걸어 둡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 취지와 정신을 담아 돌에 새기고 교가를 만들어 그 정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가정에서는 가훈을 담은 액자를 걸어 놓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경우, 가훈과 더불어 좋아하거나 마음에 새기고 싶은 성경 말씀을 걸어 놓기도 합니다. 벽에 걸린 말씀 앞을 매일 수십 번 지나다니며 무심코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와 바깥문에 신명기 6장 4~5절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신 6:6~9). 이는 문을 지나다니는 가족들이 세마, 곧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만든 일종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바쁠수록 주변에 말씀을 두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잠언 3:1~10	
묵상포인트	성도는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 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창조주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은 선택과 결정조차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겸손히 그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 앞길을 지도하심을 세상에 보여 줍니다.	
관찰과 묵상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기억하는 사람, 인자와 진리를 마음 판에 새기는 사람은 각각 어떤 복을 받나요?(1~4절)	
적용하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사랑의 하나님, 늘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저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 악인을 미워하는 지혜	날짜 : 10월 6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본문	잠언 3:27~35		
말씀요약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이웃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 까닭 없이 다투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와는 늘 교통하십니다.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목상질문 1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 3:27~30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나요? 오늘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목상질문 2	포착한 자에 대한 경계 3:31~35 하나님은 포착하고 패역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힘과 돈과 쾌락을 따르지 않고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나요?		
한절묵상	잠언 3장 34절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원수와 같이 여기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비웃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성도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자기 삶에 채웁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비결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겸손히 선을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악인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을 떨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인생을 좌우하는 우리의 선택	날짜 : 10월 3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본문	잠언 2:1~22		
말씀요약	마음을 명철에 두고 보배를 찾는 것같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인생의 선택과 그 결과 2:1~11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지적 선택을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악인을 멀리하는 지혜 2:12~22 악인과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정직한 길로 유혹할 수 있기에 내가 멀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장 7절 정직은 지혜를 얻고 경건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감출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온전한 행실’이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은 정직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 재물과 영광은 그토록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는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묵상하며 즐거이 순종하게 하소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세워가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십니다.	날짜 : 10월 4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본문	잠언 3:1~10		
말씀요약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며 평강을 얻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십니다.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이 양약이 되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찹니다.		
묵상질문 1	인자와 진리를 붙드는 삶 3:1~4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면화하는 일을 나는 어떻게 돕고 있나요?		
묵상질문 2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 하는 삶 3:5~10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나의 마음이 재정 부분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한절묵상	잠언 3장 3~4절 성도의 삶은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 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 만물 안에서 더 큰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지향점을 늘 점검하고 자기 삶을 오직 하나님 안에 둡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을 찾으려 했던 제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과 삶에 새기고,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며 가르치게 하소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부요함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징계를 통해 배우고 창조주의 지혜로 사십시오	날짜 : 10월 5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본문	잠언 3:11~26		
말씀요약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으며, 그것은 생명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과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그것이 영혼의 생명이 되니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이시며, 그분은 우리 발을 지키십니다.		
묵상질문 1	반드시 얻어야 할 지혜 3:11~18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에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를 통해 내가 배운 지혜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창조의 기반과 질서인 지혜 3:19~26 지혜를 버리는 것이 왜 창조의 근본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새롭게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3장 12절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히12:8). 아픔과 슬픔을 동반한 징계일 지라도, 그 이면에는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징계는 잘못에 대한 처벌만이 아닙니다. 징계는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이 저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니 제 삶은 안전합니다!		